

“호남고속철, 아시아횡단철도로 이어져야”

오늘부터 운행 ... 호남선 101년 만에 KTX 시대로
광주~서울 1시간 33분 ...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호남고속철도 시대가 열렸다. 1914년 호남선이 깔린 지 101년만이자, 지난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 후 11년만으로 '교통 변방'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호남고속철과 아시아 횡단 철도망의 연결을 공식 언급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총정·수도권과 연계해 추진해온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X축' 복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3시 광주 송정역에서 호남고속철도 개통식을 열고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선포했다. <관련기사 2·3면> 개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장현 광주시장,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1200여명이 참석해 호남선KTX 개통을 축하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애환을 담고 달렸던 호남선이 부설 101

년 만에 희망과 감동의 고속철로 거듭난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아껴둔 땅 광주·전남·북을 많이들 방문하셔서 남도의 맛과 멋, 문화를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2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전북, 광주 등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한 인적 교류와 기업이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제 한국 철도는 대륙으로 달려 나가기 한다”면서 “호남고속철도로 휴전선을 넘어 아시아횡단 철도망으로 연결돼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을 향한 대장정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발언한 아시아횡단 철도망은 유라시아 대륙연결철도에 포함된 노선으로 DJ 정부 때 '목포축'과 '부산축' 등 2개 노선이 한반도를 X자로 교차하도록 결정됐으나, 2006년 이후 부산을 기점으로 한 노선만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DJ정부 때인 1999년 작성된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을 보면, 목포에서 출발해 오성~서울~원산~청진·나진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노선과 부산~동대구~대전~서울~평양~신의주~중국횡단철도로 연결되는 노선이 X자로 국도를 교차·연결하도록 돼 있

으나, 2006년 작성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목포축이 빠졌으며 이후 정부에서 이를 직접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호남선KTX는 2일부터 최고 300km 속도로 광주~서울을 오가게 된다. 과거 2시간30분~2시간55분(상행선 기준)가량 소요됐던 송정~용산 구간 소요시간은 1시간33분~2시간 7분(상행선 기준)으로 1시간가량 단축된다. 용산~송정 간 열차 중 1시간 33분이 걸리는 열차는 하루 1편이며 평균 소요 시간은 1시간 47분이다. 요금은 4만6800원이다. 용산발 송정·목포행 첫차는 오전 5시20분이며 막차는 밤 10시15분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월호 피해 보상 막막한 진도 군민

해수부 “손실 입증해야 지급”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유류 피해는 주변 해역에서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업인으로서 피해,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한 자에 한 해 재산피해와 수입 손실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진도 어민 등의 손해배상은 특별법상 손실보상 대상으로 지정되고 구체적인 자료로 피해를 입증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한정되었다. 특별법상 손실보상 대상은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자, 어업활동 제한 피해자, 어구손실 등 피해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피해자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류오염·화물 손해 배상금은 100억원 이상,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금은 약 1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예비비로 지급할 예정이며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급된 배상금은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며, 선사·유병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

유류 피해 대상은 사고 지점 3~10km 이내 해역에 1229ha(53천)의 어업권과 640여가 이상의 어업인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어가의 경우 피해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유류 오염에 의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8월 진도군 조도면 사무소, 9월 진도군청에서 각각 유류 오염 피해자와 어업인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20일부터 5월15일까지 진도군청에서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희생자 1인 평균 약 4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약 7억6000만원이 보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민행복의 동반자, **빠르고 안전한 호남고속철도**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개통식에 참석해 개통 퍼포먼스를 한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하미드 말레이시아 육상교통위원장,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박 대통령, 윤장현 광주시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백상수 주민 대표. <청와대 제공>

정부, 광주U대회 본격 지원

출입국절차 간소화·대테러안전본부 꾸려
판문점 성화봉송·북 응원단은 언급 없어

오는 7월 열리는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된다. 대회기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광주송정역간 KTX가 증편되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입원 등 주요 인사의 전용 출입국 심사대가 설치, 운영되는 등 출입국 절차도 간소화된다. 안전 대회를 위해 1만8000여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테러안전대책 본부도 꾸러졌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대회 흥행의 핵심인 판문점을 통한 성화봉송, 북한 응원단 참가 등은 논의되지 않아 '반쪽짜리 지원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체부,

국토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정부부처 관계자, 체육계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U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성공 개최를 위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광주 U대회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첫 행사이기도 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목표로 그동안의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대회가 호남권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지역발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정

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조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문화와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먹거리 안전 확보로 건강관 대회, 민·관·군이 함께하는 안전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대회 준비상황 보고를 통해 “선수중심 대회, 경제효과 중심 대회, 민주·인권·평화대회, 안전한 대회 등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대회로 국제대회의 성공모델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역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예술가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예향 復刊 2주년 특집
영산강은 남도다
한과 생명의 물길, 문학 속의 영산강
강이 잉태한 절경, 영산강 8류를 담다

예향 復刊 2주년 기획
기획

정상급 예술가들
꿈의 씨앗 키운 등용문

행복 원한다면 '슬로우 라이프'
속도에서 내려 '진짜 삶' 찾는 사람들
두 담양댁의 천천히 사는 법 엿보기

예향 초대석

의사 인요한
그에게 넘치는 전라도 기질,
사랑의 유전자

남도의 장인들④
명품 진다리 붓은 아흔 아홉 번의 손길로 만들어진다
뚝배기 솜씨를 자랑하는 필자 안명환

화가의 작업실
검쳐지는 화면, 깊어지는 풍경
'입체회화'에 미의식
담아내는 작가 손봉채

문학 화제
세계로 진출하는 남도문학
'문학의 한류' 더 깊어진다

문화찾기 이슈
우여곡절 끝 통과의 '아득함'
아시아문화전당, 풀 속제 많다
새 진용 갖춘 광주비엔날레
재도약 기대한다

정운수의 스포츠인사이드④
에보리진 실용 날린 금메달리스트,
캐시 프리먼

스타 데이트
'가족끼리 왜 이래'
강심 역할 배우 김현주
진짜 가족에 느끼며 촬영했던 특이 이야기